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2기별, 10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는 기별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못 박히신 구주를 쳐다보지 않을 것인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이며,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화이트주석, 6권 1113)

“우리는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며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당신의 의의 예복으로 옷 입히시고, 죄인을 당신의 오른팔로 데려오셔서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소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99)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능력은 충성되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복음 교역자, 161, 162)

“하나님께서서는 그 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깃발**을 우리 손에 들려 주셨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이것은 분리시키는 분명한 기별로, 불확실한 소리로 전해서는 안 되는 기별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어져 물이 없는 물통**으로부터 돌아서서 **다함이 없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3보감, 151)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 실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취하는 태도 가운데 따르는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대들은 선행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믿으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믿음과 행함은 병행해야 하며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은 잘 혼합되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요구하신 바 완전한 순종과 결백한 의 이하(以下)의 것을 현대의 인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요구만큼 광범위한 것으로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며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영원한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대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억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지 않고 악의 조류

에 기꺼이 휩쓸려 가기를 바란다면 그대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령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성취될 수 없다. 우리들은 오직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1기별, 373-374)

(출 31:13-17)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 “순종의 표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넷째 계명을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들도 지킬 것이다(편지 31, 1898).”** (화잇주석, 7권 981)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음 - 복음을, 인간에게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가 요구하신 것 — 율법의 완전한 순종 — 이 꼭같다는 것을 모르는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나의 율법을 범했느냐?” “누가 너에게 나의 율법을 짓밟으라고 하였느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순종 곧 그의 모든 계명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그러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한없이 큰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리뷰 1886. 9. 21).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요일 2:4)—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에서 그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 곧 그분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이다. 구약 시대에 제시된 크신 의의 표준은 신약 시대라고 그 표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받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믿으라 믿으라”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선포하였다.”(리뷰 1886. 10. 5)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을 것인가?**—원수는 항상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나란히 행할 것이다(원고 11, 1893).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아버지과 아들에게 공히 영광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원고 5, 1885).

여호와와 그의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이요, 열매이다.”(편지 119, 1897).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실례가 된다. 저들은 범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영광의 침투하는 빛을 제거해 버리기 원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필요하게 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1기별, 232)

“그분은 사람에게 **도덕적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 할 일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죄와 마귀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 46, 1886. (3기별, 154)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換錢)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 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의 약속은 이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또 요한은”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3-5)고 말한다”(실물, 143-144)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람된 억측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법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 죄 인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 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케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죄는 불법이며” “범죄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요일 3:4, 6)다. 요한은 그의 편지서 들을 통하여 사랑을 충분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저하지 아니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요일 2:4, 5)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성결의 표준으로 정해 주신 유일의 척도로 재어 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성결하다고 할 수 없다. 도덕적 율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중히 여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쟁투, 472-473)

사단의 궤변(치명적인 기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를 가져왔다는 것이 사단의 궤변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계명의 법을 가장 경미한 정

도로도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 구주의 보혈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립시킨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부와 그분의 은혜는 분리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공존한다. “공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시 85:10)다.

우리의 대리자이신 예수님은 범법의 형벌을 인간을 대신해서 받기로 동의하셨다. 그분은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시고 인자, 곧 구주요 구속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 사실이 신성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낸다.** 범법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머물러 계시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깨트리는 자유를 가르치는 교리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알려진 죄 가운데서 사는 동안 아무도 성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견비와 고민은 아버지의 율법을 범할 자유를 인류에게 얻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기 위해 겪은 것이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용서를 받고 순종의 생애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의 공로와 회개와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였다.** 죄인은 죄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믿음, 30-31)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범죄의 형벌에서 구속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야 한다.** 사람은 행함으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셨고 의식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구원하는 방편들과 더불어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선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부조 279).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기호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진해서 행하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후 10:5)실 것이다.”(행적, 482, 483)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 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 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실물, 360)

아담과 하와는 대담스럽게 하나님의 요구를 위반하였으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두려운 결과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한 모본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

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사랑할 것이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교훈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데 그것은 그 교훈들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기 때문이다.”(성화, 67)

“회개는 순종에 이르게 함 — 인간의 영혼이 회개하는 문제는 그리 가볍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개는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적**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므로 성화되며, 신뢰하고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열렬히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빌 2:13)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전도, 289)

“죄악이나 나태함에 대한 핑계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인도 하였고, 당신의 발자국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바라신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분은 우리들 중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는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신령한 능력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땅에 오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 의도와 노력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로서 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부족을 채워 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 생애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신다.”(믿음, 49-50)

시험을 이긴 승리

“어떤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시킬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기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련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실 것 같으면, 그들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한 능력을 그들의 활동에 소유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점점 더 능률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번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 생애에서 아무리 향상할지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없는** 지점까지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그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교리의 모든 부분들은, 비록 지금껏 진리로 인정되어 왔을지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것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으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 한다.”(2보감, 219)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나고 정해진 형벌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들과 도시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 하시려고 자비스럽게 경고를 주지만 더이상 자비를 위한 탄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이며, 진리의 빛을 계속 거절하는 반역적 요소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로운 처사인 것이다.”(선지, 276)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빛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고와 책망과 주의에 관한 빛과 지식이 담긴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4증언, 391, =5증언681)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십자가에서 비취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새명을 지어 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시 40:8)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소망, 175, 176)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그대들이 갈 바리를 바라볼 때에 그대들의 영혼이 아무런 일도 행함이 없이 잠잠히 있거나 그대들 자신을 잠들도록 할 것이 아니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이기심의 타락에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창조해 줄 것이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들의 과업은 겨우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할 더럽고 죄악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의 신앙은 꾸준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하셨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 13). 우리들은 선한 행실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며 선한 행실을 유지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계 2:2)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들의 분주한 활동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는 믿음이 영혼을 활동하도록 분발시킨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기별, 20)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신 6:25)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왕국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조건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부모, 454)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부조, 337)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영문시조1886년4월15일)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시 119:30-32)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곧 미덕과 건강과 행복의 길이다 !
(RH 1883 10월 16일)

순종의 결과—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건강 법칙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사람은 모든 식욕과 정욕들을 복종시켜야 한다. 색정적인 정욕과 부절제한 식욕에 방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이 매우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몸의 기관들이 원활한 상태에 있게 된다. 건강, 생명,

행복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육체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이다. 만약 우리의 뜻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일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분이 우리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 주실 것이요,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분의 회복시키는 힘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만약 우리들이 이 일에 그분과 협력하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유용성이 그 필연적인 결과로 뒤따를 것이다(원고 151,1901).

순종은 완전에 이르게 함—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가치를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품성이 완전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이다(원고 5a, 1885).

갈림길에 서있는 십자가—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 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원고 50, 1898).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아, 이 불쌍하고 기만 당하고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다. 내가 회중 앞에 서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게 되고 저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하며 안전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 본다. 저들의 참된 상태를 깨닫도록 일깨워 주기위하여 내가 이 영혼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자아가 저희 생애의 전적인 주제(主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여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희 자신에 집중된 관심을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최후의 심판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자들 중에는 외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겉으로만 신앙 생애를 해온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자아가 엮여져 있다. 저들은 자신의

덕행, 영향력,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는 재능 및 진리에 대한 저희 지식이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 저들은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눅 13:26).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마 7:22)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고 말씀하신다.” (가려뽑은기별 1권, 81, 82)

투쟁은 우리의 것임 - “참된 증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신다.” (화이트주석, 7권 96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소망, 24)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막 14:38)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 줄 것이다.” (소망, 126)

“십계명을 자비의 측면에서 보고,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 그 금지 조항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이 없는 행복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그 품성은 무궁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방호벽이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의의 원칙들을 보여줌으로써 범죄의 결과인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불러온다. 그 자신의 행동들은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환경을 조성한다.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그 속에 역사하여 그 품성을 바꾸어 놓고 그가 다시 죄를 범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 사람은 죄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잘라버린다. 그 확실한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고난 욕망과 경향성들을 초월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한다.” (화이트주석, 6권 1110)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실물, 97, 98)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 6:2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 — 그분의 성품의 표현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이 율법은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라, 모쪼록 더욱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을 바라라. 그렇다, 의를 주리고 목마르게 사모하라. 약속하신 바는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이다. 그대의 마음을 이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사업은 평화이며 그 효과는 영원한 평온과 확신이다.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 —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며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영생을 위한 우리의 분투에서 성공할 수 있다. 능력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3기별, 202, 203)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양분을 보낸다. 참신자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에게서 양분을 섭취한다.

이와 같은 영적 관계는 개인의 믿음을 활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은 우리 측에서 최우선적 선택, 완전한 신뢰, 전적 헌신 등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관심과 명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번영과 그분의 사업의 명예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으셔야 한다.

이와같이 밀접한 연결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지워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진다.” (2보감, 72, 73)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

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실물, 312)

“주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인류의 머리로서 인간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원칙에 순종하셨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여호와와 올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봉오리들과 열매이다.” (1기별, 211, 212)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말씀하신 구약을 배척한다.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올법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올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올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올법을 펼쳐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올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실물, 128)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올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3기별, 172)

오직 하나의 복음(갈 3:8; 고전 10:4) - 구약과 신약 사이의 대립,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간의 대립, 유대인의 요구 사항과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요구 사항과의 대립, 등의 대립이 있다고 흔히들 주장하지만 그런 대립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앞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과 꼭 같은 이치이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복음의 약속은 에덴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었고, 히브리인들도 다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영문시조, 1882. 9. 14)

그리스도의 피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들을 위한 것(출 13:21, 22; 고전 10:1-4; 딤후 2:5) - 이 세계의 구속주께서 구름 기둥에 휩싸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교통하셨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말하지 말자.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불평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들과 맺고 있던 그리스도는 우리들과 맺고 있는 분과 같이 부드러운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시었다. 우리가 영혼의 전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였다(청년지도자 1901. 7. 18).” (화이트주석, 6권 1061)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된 복음과 꼭 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청년 지도자 1892. 9. 22).” (화이트주석, 6권 1077)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의식존중주의의 틀에 매여 있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였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행적, 15)